“조류 충돌 위험 높은 시간대 최소 근무 인력 투입”

김문수 “‘제주항공 참사’ 안전관리 문제”

실제 인력 운영 충돌위험 분포와 정반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며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 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 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 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새들은 야간 또는 새벽에 이동한 뒤 일출 전후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공역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게 조류 생태 및 항공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문수 의원은 “조류 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 북구 신청사 현장점검 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신관 건립 공사 추진 경과 주민설명회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북구의원, 주민 대표들이 신축 청사 층별 부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배치, 국가 생존 문제”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수도권 집중형 반도체 정책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6일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지역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 일극 집중형 반도체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도체 남방한계선’과 ‘무조건 집적론’에 대해 “산업 현실이 아닌 수도권 중심 인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손실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국가 리스크를 키운다는 게 이 수석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업 입지 재검토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반도체 남방 한계선’은 산업 현실이 아니라 구조적 지역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전략적 자산으로 집중보다는 분산해야 한다. 정치적 이전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단일 전력망에 집중될 경우 전력 사고나 기후·지정학적 변수에 국가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 전략과 일치하는 만큼 반도체 분산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호남의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 유치를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2025년생 ‘출생기본소득’ 신청하세요”

道, 생후 12개월부터 月20만원 지급

전남도는 6일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매달 20만원씩 전남도 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 신고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출생기본소득을 받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정기·장기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7천100명 중 7천14명(가집계)에게 지급돼 지급률 98.7%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2025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 1.11명으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천295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양시원 기자

전남학숙 신규 입사생 172명 모집

月 11만원으로 식사·통학버스 제공

도립 전남학숙이 광주와 인접 시·군 대학에 다니는 전남 출신 대학생의 면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72명(남 94명·여 84명)이다. 7일부터 2월12일까지 37일간 모집한다. 학숙 누리집(www.jnhs.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 이용이 어려우면 이메일, 팩스,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광주와 인접 시·군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멀티미디어실, 세탁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사생은 월 11만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1일 9회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1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서 계속

시·도교육청 통합과 기초자치단체 존치 문제와 관련, 신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거구도 그대로 가져가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문제 역시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처럼 행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위원장은 “예상보다 빠른 통합 속도에 우려가 많을 줄 안다”며 “그 우려가 희망의 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인 제가 치밀하고 정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